


무궁애학원 2019년 3/4분기 운영위원회 회의록

	담 당	국 장	원 장
결 재	이진경	이진경	

실시일자	2019년 9월 26일(목)	시 간	15:30 ~ 17:00
참 석 자 (총 8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운영위원(6명) 이선우 위원장 정해도 위 원 박민현 위 원 김범수 위 원 이상경 위 원 김은화 위 원 ■ 직원(2명) 이순미, 강말출 	전체진행	이선우 위원장
		기 록	이순미 사회재활교사
		장 소	무궁애학원 내 스카이 카페
제 목	무궁애학원 2019년 3/4분기 운영위원회		
회의내용	<p>○ 순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15:30 개회선언(이선우 위원장) ■ 15:35 무궁애학원 일반현황, 3분기 주요사업 및 진행사항 4분기 추진 예정사업 보고 ■ 16:00 심의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거주인 소유 금전관리 지원 규정 변경(안) - 거주인들의 건강관리 지원 - 주 52시간제 적용에 따른 대책(안) ■ 17:00 폐회선언(이선우 위원장) <p>○ 성원보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무궁애학원 운영위원 6명 중 6명 모두 참석하여 성원이 구성되었음을 확인하고 인사말과 함께 회의를 개최하다(이선우 위원장) <p>○ 무궁애학원 일반현황 보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박민현 위원이 무궁애학원 일반현황에 대하여 설명하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거주인 현황(정원 85명, 현원 87명) · 부서별 현황 · 직원현황 <p>○ 2019년 3분기 주요사업 및 4분기 추진 예정 사업 보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박민현 위원이 무궁애학원 2019년 3분기 주요사업 및 4분기 		

추진 예정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다.

○ 심의사항

■ 박민현 위원이 거주인 소유 금전관리 지원 규정 변경(안)에 대해 설명하다.

- 이선우 위원장 :

* '10만원 이상 지출 시 가능한 체크카드를 사용한다의 항목에 대한 의견' 거주인 개인의 금전 사용은 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규정이 너무 세부적이면, 거주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. 재정관리는 거주인에게 정보제공 할 것을 권장함. 거주인들에게 자신의 재정관리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알려주고 교육할 필요가 있음.

* 체크카드 사용 부분은 규정에 포함하기 보다는 거주인들이 합리적으로 금전관리 할 수 있도록 교육 서비스로 지원하였으면 함. 개인 금전관리 지원은 교육 지원으로 수행정도에 따라 구분지원하고 서비스계약을 작성하여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. 장애인을 우리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며, 보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됨. 발달장애인들에게 어릴 때부터 경제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, 카드사용으로 화폐가치에 대한 교육이 어려워질 수 있음.

- 박민현 위원 :

* 금전관리는 점차 거주인 개인이 자신의 금전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지원하고 있음. 예전에는 모조지폐로 교육을 하였으나, 요즘은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금전 사용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음.

* 장애연금이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, 장애연금으로 지역사회 마트, 미용실 등을 이용하면서 예전에는 시설장애인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수퍼에 컵라면 구입하는 사람, 고객으로 생각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음.

- 김은아 위원 : 어렸을 때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. 성인이 된 이후에는 어려움이 있음.

- 이선우 위원장 : 장애인거주시설은 장기적으로 거주인들 100% 자립을 목표로 하며, 시설은 서비스 지원하는 기관으로 변경되며 서비스 계약으로 이루어짐. 다양한 주거형태방안에 대한 매뉴얼 제작이 필요하며, 지역사회 내 거주 바우처 사업으로 홍보자료를 만들어 재가장애인 거주 지원하는 서비스를 늘어나갔으면 함.

- 박민현 위원 : 현 국가의 제도, 법, 예산이 되면 체험함도 늘일 수 있음.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거주인들이 퇴소, 자립하려면 지역사회

여건, 지역사회 내에 시스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. 현재 거주시설에서는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지자체에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. 재가장애인의 부모님 자부담, 양산시 예산확보 등으로 다양한 주거형태 운영에 대해 양산시에서 시범사업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임.

■ 박민현 위원이 거주인들의 건강관리 지원에 대해 설명하다.

- 박민현 위원 : 체험홈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욕구에 따른 식사(짚은 야식 - 라면, 간식 등, 짜게 먹는 습관)로 인해 성인병(고혈압, 당뇨, 비만 등)이 발생되고, 연령이 높아지면서 노인성 질병에 노출이 되고 있음. 이를 위해 영양사, 간호사가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건강 관련 지식들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거주인들의 건강관리에 애로사항 있음.

- 이선우 위원장 : 비장애인의 경우에도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많은 질환을 생기며, 건강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음.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인의 경우도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많은 질환에 노출되며, 건강관리 또한 안 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임.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봄. 어려서부터 식습관 교육이 필요하며, 성인이 되어서의 식습관을 고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.

■ 박민원 위원이 주 52시간제 적용에 따른 대책(안)에 대해 설명하다.

- 이선우 위원장 : 주 52시간제 적용 시 현재 인력으로 업무가 가능한가요?

- 박민현 위원 : 주야간 근무자의 경우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므로 현재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음.

- 이선우 위원장 : 주 52시간제 적용이 되려면 인력이 더 확충되어야 함. 주 52시간제로 할 경우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통계자료를 내서, 장애인복지시설협회 또는 사회복지사협회에 의견을 개진하였으면 함.

○ 추가질의에 대한 의견을 묻자 추가질의가 없었고, 이선우 위원장이 폐회를 선언하다.

회의 사진



장애인거주시설 무궁애학원